

“트럼프, 이란과 전쟁할지 말지 사우·친구 판단에 달렸다”

미국·이란 26일 협상...결과 평가는 쿠슈너·윌코프의 몫 사실상 최후 담판으로 '이란 시간끌기' 등 태도 판정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결정이 상당 부분 당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친구 스티브 윌코프 특사와 판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결정할지는 부분적으로 이란이 핵

협상을 두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에 대한 윌코프 특사와 쿠슈너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될 이란과의 협상은 윌코프와 쿠슈너가 주도할 예정인데, 합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들은 26일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여부 결정을 앞둔 마지막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제한적 공습을 검토 중이며, 그래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를 위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격 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인물들이 결국 윌코프 특사와 쿠슈너인 셈이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 임명된 윌코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

자 1986년부터 40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교류해온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중동 특사로 발탁되기 전 외교부대 경향이 전무했으나 그의 '거래 능력'을 높이 산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속에 주요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고 여러 중대 협상에 나서왔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전문 부서 출신 대신 그가 협상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윌코프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 러시아 쪽에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

방카의 남편으로,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잇따라 추진해 중동 평화 구상의 기틀을 마련했다.

트럼프 1기 집권 종료 후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설립해 운영 중인 그는 2기 초기에는 공무 참여를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쿠슈너는 가자지구 휴전협상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 이란 핵 협상까지 주요 협상에 투입되며 수개월간 윌코프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 주간 백악관 당국자들에게 이란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윌코프 특사는 이란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관련 회의에도 모두 참석해왔다고 한다.

다른 조언자로는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팻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팀스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있다.



'불법체류 살인범죄 피해 가족의 날' 지정 포고문 서명한 트럼프.

연합뉴스

미국인 55% “트럼프,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

1기 집권 초와 비교해 13%p 상승...78% 민주주의 위협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기 집권 초 같은 시점과 비교해 13%p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의 60%는 미국이 1년 전에 비

해 나빠졌다고 답했고,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이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90%가 '1년 전보다 미국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8%에 달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은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당원의 91%, 무당층의 80%, 공화당원의 61%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8%는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응답은 1년 전보다 12%p 늘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